국내 마감시황

2025.9.11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코스피, 8거래일 연속 상승

미국 8월 PPI 예상치 하회,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확대
외국인과 기관 합산, 코스피 1.1조원 가량 순매수

주요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3,344.20pt (+0.90%)	834.76pt (+0.21%)	454.00pt (+0.88%)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392.00 원 (+3.5 원)	2.8260% (-0.7bp)	6,545.25pt (+0.08%)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억)	KOSDAQ (억)	KOSPI200 선물 (억)
개인	-11,492 억	+464 억	+1,850 억
외국인	+3,023 억	-669 억	+2,288 억
기관	+8,225 억	+307 억	-3,843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일 미국 8월 PPI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졌고, 오라클의 호실적 발표 이후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훈풍이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장중 한 때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분이 축소되었으나, 오후장 들어 외국인·기관의 동시 순매수에 힘입어 코스피는 신고가를 재차 경신했습니다. 이날 KOSPI는 0.90%, KOSDAQ은 0.21% 올랐습니다.
- 외국인과 기관은 KOSPI를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KOSPI에서 전기·전자와 운송장비·부품 업종을 매수했고, 금속과 화학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한편, 기관은 KOSPI에서 전기·전자와 운송장비·부품 업종을 매수했고, 건설과 전기·가스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EU 19개국이 내년 초부터 무기 공동구매를 한다는 소식에 방산주가 올랐습니다. 9월 1~10일 라면 수출금액이 호조세를 보이자 음식료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주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성장주 성격의 바이오주가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 반도체주가 올랐습니다. 반면, 이벤트 소멸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되면서 금융주와 복합산업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약화되며 엔터주가 하락했습니다. 그 밖에 원전주가 내렸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농심(+19.17%), 삼성전기(+4.16%), 한화에어로스페이스(+3.93%)가 올랐고, 미래에셋증권(-4.19%), 롯데지주(-3.33%), 두산에너빌리티(-2.56%)가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